

역사적 트라우마의 치료과정- 현기영의 「순이삼촌」을 중심으로

Treatment Course of the Historical Trauma -Viewed from the Novel, *Uncle Suni* by Hyun Ki-young

음영철

삼육대학교 교양학부

Yeong-Cheol Eum(sangoma@syu.ac.kr)

요약

본 논문은 현기영의 「순이삼촌」을 중심으로 역사적 트라우마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치료과정을 탐구한 것이다. 주된 연구방법으로는 주디스 허먼의 이론을 적용하였으며, 논의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순이삼촌은 제주4·3사건 당시의 집단 학살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러나 30년 동안의 유예된 삶을 살면서 그녀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외상 증세인 환청, 결벽증 등과 같은 원인을 알아야 한다. 또한 국가 사회적으로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고, 역사 정의를 바로 서야 한다. 둘째, 순이삼촌은 북촌 일대에서 행해지는 제삿날이나 ‘옴팡밭’에서 일할 때 발견되는 ‘흰 뼈’와 ‘납탄환’ 등으로 인해 외상을 재경험한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애도가 필요하다. 애도의 과정은 그녀에게 심적 고통을 야기하는 외상 당시의 체험과 증언을 해야 하고, 이를 말할 때 자신의 정서를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셋째, 역사적 트라우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공동체 사이의 연결 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은 자기서사에서 집단서사로 치료의 장이 확장됨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는다. 그 결과 외상치료는 회복단계에 도달한다.

■ 중심어 : | 순이삼촌 | 역사적 트라우마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자기서사 | 애도 |

Abstract

This thesis is a result of a study of the treatment course of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because of the historical incident which is described in the novel, *Uncle Suni* by Hyun Ki-young. Uncle Suni survived the massacre which happened during the 4.3 Incident in Jeju Island. However, living a buried life, she suffers a historical trauma. To cure her disorder, she had to know the cause of her illness, such as auditory hallucination, mysophobia, etc. The author describes that kinds of patients should be ensured to get help not only in duty of the society but of the country and that historical justice should stand right. Uncle Suni reexperienced the incident when she happened to discover 'the white bones' and 'the lead bullets' while she was working in her 'Ohmpang field'. To cure her illness, she needed to confess her guilt that she had escaped from the massacre, and deep appreciation about the incident, which means she had to testify, and in the course of the testimony, she had to confess her inner feelings. To solve the historical trauma, there should be a recovery of connection between the patient and the society. The course of treatment should go from the patient herself to the realm of the society through which the patient, Uncle Suni can reach the recovery

■ keyword : | Uncle Suni | Historical Trauma | Post Stress Disorder | Self-narrative | Condolence |

I. 서론

제주4·3사건은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많았던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양정심에 따르면 제주4·3사건은 해방 전후의 한국현대사에서 '5·10만 독선거'를 저지한 유일한 투쟁이라고 하였다[1]. 그리고 제주도 곳곳의 동굴에서 제주4·3사건 당시의 유골이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여전히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에 제주4·3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가해자의 역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제주4·3사건을 두고 폭동의 시각과 항쟁의 시각이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2]. 그러나 공식 역사가 과거사를 청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진상을 통해 역사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제주도민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이제라도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국가폭력에 따른 치료를 위해 정부주도의 트라우마센터 건립은 늦었지만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3]. 무엇보다 피해자와 유가족 개개인의 보상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충분한 치료와 회복이 병행되어야 한다. 개인의 치료와 사회적 치유가 전제하지 않는다면 국가에 의한 그 어떤 노력도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제주4·3사건을 논의한 글로 주목되는 것은 김학동과 한순미를 들 수 있다. 김학동의 논문은 1997년에 일본어로 씌어진 「화산도」가 대하소설로 발전되기 이전의 발전적 단계와 작가 김석범의 문학세계를 고찰한 것이다[4]. 한순미는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을 다루면서, 제주의 오랜 문화장치들이 할 수 있는 전설, 이야기, 본풀이 등을 중심으로 제주4·3사건이 가져온 고통의 기억을 치유할 수 있는 용서와 화해를 모색하고 있다[5]. 그러나 제주4·3사건의 생존자와 유족들의 트라우마를 치료적 관점에서 접근한 논문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황상익은 의학사적 측면에서 당시 생존자의 구술에 의존하여 집단 학살의 체형담을 기록하면서 이들에게 가해진 신체적·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억압, 부정, 회피, 반동형성, 인격분리 등이 동원되었다고 하였다[6].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병

리를 들여다볼 수 있지만 이 논의가 치료의 구체적인 접근 방안을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그 외 개인의 심층 심리를 살펴 제주4·3생존자의 트라우마를 미술치료적 접근을 통해 연구한 논문을 들 수 있다[7].

역사적 트라우마는 진실과 정의, 배상과 사죄, 치료와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 치료가 가능하다. 제주4·3사건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은 반복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사건의 발생과정에 대한 역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문학 텍스트의 서사과정을 피해자나 환자의 인생살이와 접목시킴으로써 제주4·3사건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 북촌리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소재로 한 현기영의 「순이삼촌」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한 문제의 서사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본 논문은 현기영의 「순이삼촌」에 나타난 순이삼촌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일종인 역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어떻게 역사적 트라우마를 치료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주디스 허먼의 이론을 적용하였다[8].

II. 외상 증세와 안정감의 회복

「순이삼촌」의 스토리는 작중인물인 '나'가 이틀간의 휴가를 얻어 고향을 방문하면서 시작된다. 8년 만에 찾아간 고향에서 '나'는 순이삼촌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순이삼촌이 죽게 된 원인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순이삼촌은 '나'의 할머니에게 맡겨 두었던 오누이 자식을 데리러 왔다가 도피자로 몰려 군인들의 총탄에 쓰러진다. 그러나 그녀는 자식이 돌아나 문헌 유평밭에서 30년 전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다. 그렇지만 그녀의 유예된 삶은 환청증상과 결벽증, 파출소 기피증으로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어느 누구의 위로를 받지 못한 그녀는 한 많은 삶을 마감한다. 그녀의 죽음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시달린 끝에 도달한 비극적인 죽음이었던 것이다.

순이삼촌은 군인들이 저지른 집단 학살의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나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린다. 따라서 그녀의 심리적 외상은 국가 폭력에 기원한다. 작품의 공간적 배경인 '서촌'은 사실 집단 학살의 장소인 '북촌'의 다른 이름이다. 중산간 지역인 그곳은 군경의 통제권에 들어있었던 해변과 달리 '산사람'들에게 양식을 강탈당해야 했고, 남자들은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 입산해야 했던 곳이다[9]. 그런 중산간 벽지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끔찍한 집단 학살이 자행된 지역이다.

제주도 곳곳에서 집단 학살이 있기 전에 군인가족, 순경가족, 공무원가족, 대동청년단 국민회 간부 직계가족은 죽음에서 배제된다. 국가가 개개인의 생명을 보살피는 임무를 떠맡고 있다고 할 때 이와 같은 배제는 공권력의 횡포이다. 이와 같은 예외 상태를 인정하고 나서 자행된 집단학살은 카를 슈미트가 말한 "정치적인 것의 규준으로서의 동지와 적의 구별"[10]이자 "주권자란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자"[11]의 극명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승만 정권의 반민주적인 통치 사례가 제주4·3사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소설에서 나오듯이 대다수의 주민과 달리 소수의 집단이 학살에서 배제된다. 이들은 예외로 인정되어 신뢰할 수 있는 동지로 포함된 것이다. 반면 순이삼촌을 포함한 다수의 지역 주민은 위반 사실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법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제주도민들은 "희생물로 바칠 수는 없지만 죽어도 되는 생명"인 호모 사케르인 것이다[12].

순이삼촌은 사지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인물이다. 순이삼촌처럼 당시의 집단학살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30년이란 긴 세월을 살면서 역사적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심리적 외상에 시달린다. 피해자는 심리적 외상을 준 사건이나 사고를 기억이 아니라 망각의 해법으로 풀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잊는다고 해서 잊어지는 것이 아니다. 잔학 행위는 묻히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망각의 방식으로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끔찍한 사건을 기억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사회 질서의 회복과 개별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제 조건에 해당할 것이다. 순이삼촌과 같이 기적적으로 생존한 사람들은, 1949년 마을 소각

때 입은 상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외상 사건과 유사하거나 회상 사건을 상징하는 여러 사건에 노출되었을 때이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증상은 환청이다. 순이삼촌은 밥을 많이 먹는 식모라는 소문을 스스로 퍼트리고 억울하게 생각한다. 순이삼촌의 환청 증상은 45년 전 콩 두 말을 훔쳤다는 누명을 썼을 때 얻은 것이었다. 메주콩 두 말이 없어졌을 때 사이가 안 좋은 이웃집에서 순이삼촌에게 혐의를 씌워 놓았던 것이다. 결국 다툼 끝에 이웃집 여인이 파출소 가자고 팔을 잡아끌었을 때 그녀는 주저앉아 버리고 누명을 쓰게 된다. 이 일로 순이삼촌은 순경을 먼 빛으로만 봐도 피하는 기피증이 생겨난다. 이처럼 순이삼촌과 같이 집단 학살 때 경험한 역사적 트라우마는 어떤 계기가 되면 다시 재생되지 없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역사적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희생자 조사를 벌일 때에 많은 유족들이 신고를 기피했다고 한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증상은 결벽증이다. 결벽증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질병이다. 자신을 끊임없이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죽음의 장면을 목격한 제주도민 중에 한 사람은 시체가 자꾸 달라붙는 환상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게 되었다는 증언이 있다. 순이삼촌은 누가 뒤에서 훔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반복되면서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것이다. 소설에서 순이삼촌은 '된밥 만들기'라는 결벽증에 시달린다. 그녀는 하루 종일 뒷박질을 하거나 생선이 부스러진 이유를 해명하기 위해서 생선이 석쇠에 들러붙은 흔적을 작중화자인 '나'에게 보여준다. 이런 결벽증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은 증상이 심해지면 일상적인 일도 힘들어 한다. 결국 상군해녀이던 순이삼촌은 죽기 전에 갑자기 물이 무서워져서 물결마저 그만둔다.

순이삼촌의 이러한 증상들은 타인의 공격에 대한 방어 기제가 실패한 데서 온 정신 병리로 볼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여성이나 어린아이인 경우, 그들은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무시당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영역 바깥에 자리잡게 된다. 이들의 경험

은 말하기가 금지된 무엇이 되는 것이다. 순이삼촌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군인과 경찰의 폭력으로 인해 입은 상처는 말하기가 금지된 것으로 그녀의 심층에 자리하고 있다가 누명 사건을 당했을 때 외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당시의 상처가 되살아났기에 순이삼촌은 주저앉을 뿐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외상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피해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목격자가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사회적 바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소설에서 나오지만 순이삼촌이 파출소를 피해 다니는 기피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웃사람들이 그녀의 누명을 벗는 데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다면, 그녀의 트라우마는 안정감을 되찾고 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역사적 트라우마는 주위의 무관심으로 인해 깊어진다.

주디스 허먼이 지적했듯이 외상 기억을 갖고 있는 피해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첫 단계는 심리적 안정감의 회복이다. 외상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위험이 지나고 오랜 후에도 마치 현재에도 계속해서 위험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상처를 체험한다. 외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건강한 삶을 방해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환청이나 결벽증과 같은 증세가 그것이다. 이른바 예민하게 반응하는 ‘과각성(hyperarousal)’이 심해진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료자가 중립을 유지하면서 환자에게 자율성을 주고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인 심리적 안정감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치료 작업도 성공할 수 없다. 또한 충분히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선불리 다른 치료 작업을 시도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한다. 순이삼촌과 같이 만성 외상에 시달리는 환자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역사적 트라우마에 시달린 사람들이 안정감을 조금씩 회복해 가고, 주위로부터 돌봄을 받을 때에 최소한 자기의 삶을 예측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상태가 자기와 자기를 돌봐주는 자기서사를 강화하고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감의 회복 단계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I. 외상의 재경험과 애도의 중요성

소설에 나타나듯이 순이삼촌은 복춘 일대에서 벌어지는 제사를 매년 경험한다. 그날은 자신을 두고 먼저 죽은 남편과 아이들의 제삿날이기도 하다. 한날 한때에 집단적으로 학살이 이루어졌듯이 제사도 같은 날 밤 자정에 이루어진다. 제사가 기억을 통해 망자를 되새기는 행위라면 순이삼촌은 같은 날 억울하게 죽은 가족의 제사를 수행하면서 트라우마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제삿날에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대학살이라는 슬픔과 고통을 계속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기억을 되새기는 것이다. 순이삼촌뿐만 아니라 이때 살아남은 마을 주민들은 분노와 억울함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이때 이들이 느끼는 죄책감은 무기력한 현실을 건디는 힘이 될 수 있지만, 적절한 치료의 과정이 없으면 외상을 경험한 이들의 삶은 파괴되고 만다. 모든 사람이 공포를 경험했다고 해서 외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순이삼촌과 같이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반복되는 외상의 재경험을 느껴야만 하는데, 이때 치료를 위한 외상의 재생은 주디스 허먼이 말했듯이 상해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개인이 반드시 느껴야만 하는 것이다.

주디스 허먼은 외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치료를 위한 두 번째 단계로 가족을 잃은 상실감을 애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피해자는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지만, 자신의 외상을 극복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외상을 애도하는 과정은 완전하게 재구성되지 않는다. 소설에서 알 수 있듯이 순이삼촌은 ‘옴팡밭’에서 일을 하면서 발견한 ‘흰 잔뚱’과 ‘납탄환’은 그녀의 고통을 일깨우며, 조용한 대낮에 일어나는 ‘환청’은 그녀의 신경쇠약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은 피할 수도 없고 망각할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니체는 강건한 건강을 가질 수 있는 능력으로서 망각능력을 폄하했지만 역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대다수의 환자들은 과거의 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외상성 신경증’을 앓고 있는 것이다[13].

따라서 회복의 두 번째 단계인 애도는 외상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외상이 일어나기 전부터 외상이 일

어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데서 외상 치료가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힘든 작업은 과거 집단적 폭력이 있었던 환청의 공포를 직접 대면하는 일이며, 이 경험들로부터 온전한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일이다. 생존자인 피해자들은 자신만이 살아남았다는 속죄 의식을 버려야 한다. 또한 자신에게 가해진 성폭력의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 이 과정이 절대로 가해자를 면죄시키는 일은 아니다. 때문 이러한 애도의 과정에서 절망과 대면하면서 일시적으로 자살 위험이 가중될 수 있다. 그러나 주디스 허먼이 말했듯이 두 번째 단계에서 나타나는 자살 경향은 그러한 끔찍함이 가능할 수 있는 세상을 거부하겠다는, 차분하고 감정이 묻어나지 않으며 외견상 합리적으로 보이는 결심에서 비롯되기에 극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회복단계인 애도는 정해진 기간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애도의 과정은 끝없는 눈물로 인해 고통스러울 수 있다. 주디스 허먼은 환자들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언제쯤 치료 과정이 끝날지 묻곤 한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피해자들이 이 과정을 건너뛰거나 서둘러 끝낼 수 없다는 것이다. 살아 있는 한, 환자들은 매일 슬퍼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역사적 트라우마에 따른 외상 치료를 받은 피해자들은 자신이 체험한 외상이 인생에서 중심에 서지 못함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자신이 경험한 역사적 트라우마를 치료함으로써 인생의 새로운 단계마다 발생하는 갈등과 도전을 극복하면서 자신의 역사를 만들고, 새롭게 살아갈 힘을 느껴야 한다.

애도의 한 과정으로 외상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것은 외상에 담긴 특정한 의미를 파악하여 외상 전의 심리 상태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주디스 허먼은 이 과정이 이야기 사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피해자의 삶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담고 있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순간으로 치료가 접근해 들어갈 때마다 언어를 사용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을 깨닫는다. 예컨대 순이삼촌의 경우 장대 두 개에 의해 사지인 ‘옴팡발’에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죽다 살아난 경험이라는

지 공권력에 의해 구타당한 경험, 지서에 붙들려가서 남편의 행방을 대라는 닭달 끝에 옷을 벗기는 성고문의 고통은 외부에 알리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이다. 그러나 순이삼촌과 같은 외상을 갖고 있는 피해자들이 외상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극적인 체험을 말해야 한다. 외상은 애도의 한 과정인 이야기를 통해 치료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당시 느꼈던 정서를 기억해서 말해야 한다. 정서가 없는 진술은 치료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이삼촌과 같이 역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데서 오는 고통을 숨김없이 말해야 한다. 예컨대 피해자들은 집단 학살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무엇을 느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악몽이나 플래시백 등의 증상을 말해야 한다. 애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외상의 재경험은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디스 허먼에 따르면 이를 피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된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기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침투 증상을 피하려하지만 결국에는 외상후 증후군을 악화시킬 뿐이다. 이렇듯이 역사적 사건에 따른 만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개인에게 아픈 상태를 인내해야 하고 치료 기간도 길다. 국가나 사회의 도움 없이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IV. 피해자와 공동체 사이의 연결 복구

주디스 허먼이 말한 역사적 트라우마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세 번째 단계는 피해자와 공동체 사이의 연결 복구이다. 대중들은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주기적으로 알게 되지만 그 얇이 오래가는 일은 드물다. 부정, 억압, 해리는 개인의 내적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수준에서도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역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은 역사로부터 소외되고 사회와 단절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 외상 환자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한 세 번째 단계는 역사의 진실을 재발견하는 일에서부터 시

작되어야 한다.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는 사회적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외상의 실재를 의식에 붙들어두기 위해서라도 범사회적인 조치이고 목격자들을 집단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근간으로 한 외상 치료는 쉬운 일이 아니다.

제주4·3사건의 희생자들이 외상에 따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폭력에 따른 희생자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주4·3사건이 발생하고도 30년이 지났지만 군지휘관이나 경찰간부는 권력 주변을 맴돌고 검사들은 ‘빨갱이’로 몰릴 것이 두려워 국가적 범죄 행위를 고발할 용기를 내지 못한다. 국가가 저지른 범죄는 공동체의 온전함을 방해하고 공동체를 해체시킨다. 결국 가해자가 권력을 잡고 있는 한 역사적 트라우마는 치료될 수 없게 된다. 적어도 역사의 왜곡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외상 치료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공동체가 경험한 집단의 기억을 역사의 기록물로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알권리인 기본권을 우리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14].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제주4·3특별법’으로 약칭)을 2000년 1월 12일 제정 공포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15].

역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희생자 치료 과정의 세 번째는 피해자와 공동체 사이의 연결 복구이다.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힘을 빼앗겼고, 다른 사람과 단절된 삶을 살기에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상호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공동체의 복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현기영의 또 다른 소설 「길」과 「아스팔트」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자가 분노의 표적을 사회적 편견으로 돌리는 대신 가해자를 편견의 또 다른 희생자로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다. 가령 「길」에서 소설의 화자가 제주4·3사건 당시에 폭도 용의자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를 고발한 휘진의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16].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망각의 역사는 뒤 풀이된다. 공동체와의 연대감을 회복한 피해자는 자기 서사의 심층에 존재하는 자신의 경험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이제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비슷한 경험으로 고통 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심리적 트라우마는 호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할 때 그들은 사회와 이웃으로부터 고립된다.

외상 치료가 힘든 것은 이웃 간의 단절감에서 비롯된다. 생존자는 적극적으로 사회에 나아갈 상태에 있지 못한 것이다. 피해자는 과거에 고착되어 이상적인 자기를 생성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심리적 안정과 애도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신이 국가 폭력의 희생자였음을 인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 또한 국가 폭력의 희생자였음을 알고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공동체의식을 가져야만 외상 치료는 적극적인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피해자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경험한 외상에 담긴 의미를 역사적인 집단 체험으로 통합시킬 준비를 해야 한다. 이는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삶을 다시 세우는 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치료의 단계를 높이는 것이다.

역사적 트라우마를 온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공동체와의 연대감을 통해 개인의 슬픔과 외상에 따른 고통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형태를 띠어야만 한다. 주디스 허먼은 삶을 다시 세우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외상을 경험했던 자기의 기억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개인적인 삶의 틀 안에서 외상 경험을 치료하고자 한다. 그러나 특정한 소수는 더 넓은 세계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처럼 느끼며 다른 이들에게 증언하려고 한다. 이에 더 나아가서 진상을 규명하고, 사회의 병리를 고치려 한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따른 외상 치료의 종착지는 없다.

피해자가 더 이상 과거의 외상에 종속되지 않고 자기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깨달았을 때, 피해자는 트라우마에 따른 고립을 벗어나 자기서사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한다. 이는 자기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역사의 내면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 상태에 이른 피해자는 일상으로 복귀하고자 한다. 이웃과 사회와의 단절을 끝내고, 자기 안에 있는 일상의 욕망을 분출하는 것에서 치료는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오랫동안 정신병원에서 입상으로 근무했던 가타리는 환자가 자발적인 제안을 통해 자신의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였다[17].

결국 역사적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동맹을 통해 사회적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사회적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인은 다시 고립되고 회복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퇴행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왜냐하면 억압된 분노가 공동체를 통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타인을 배제하고 스스로가 단절된 상태에서 삶을 마감하기 때문이다. 순이삼촌은 개인의 치료와 사회적 치유를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두 아들이 묻힌 '옴팡밭'에서 자살한다. 그녀는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국가 사회의 무관심이 낳은 사회적 죽음이라 할 것이다. 작품에서 아무도 돌보지 못한 순이삼촌의 죽음을 두고, "그 죽음은 한 달 전의 죽음이 아니라 이미 30년 전의 해묵은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를 예증한다. 이미 순이삼촌은 집단 학살 때에 죽은 목숨이었던 것이다.

국가가 저지른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들은 가장 극한의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다. 이들은 외상에 대한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또한 국가나 사회에서 망각을 강요하는 것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힘겹게 싸우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진정한 사죄를 하는 것은 법을 바로 세우는 것이자 역사를 옳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러나 정의롭지 못한 국가는 범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해자에게 망각을 조장한다. 국가는 은폐와 침묵으로 피해자의 회생을 강요한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집단적으로 과거의 외상에 따른 기

억을 치료하기 위해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면 국가는 그들에게 '빨갱이'의 낙인을 찍기도 한다. 국가를 대신하여 정부가 나서서 역사적 과오를 사죄하지만 진정한 사죄가 동반하지 않을 때, 역사적 트라우마는 반복되는 것이다. 이 땅의 많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라도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까지도 제주4·3사건에 대한 원인, 주체, 계기에 대한 진상규명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제주4·3특별법 제정 이후 희생자 유가족들이 정부차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등 서둘러 봉합하려는 움직임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18].

V. 결론

제주4·3사건은 수많은 희생자를 낸 역사적인 사건이다.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미흡하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다. 본고에서는 주디스 허먼의 이론을 원용하여 이러한 역사적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본 텍스트는 현기영의 「순이삼촌」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순이삼촌」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역사적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서사와 관련된 인생살이를 살지 못하고 악몽, 환청, 결벽증, 기피증과 같은 증세를 나타낸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 폭력의 희생자라는 인정과 심리적 안정이다. 주디스 허먼이 말했듯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이 확보되지 않은 그 어떤 치료도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피해자가 유가족이나 이웃 그리고 국가와 사회로부터 돌봄을 받을 때에 비로소 역사적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따른 만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애도이다. 가족을 잃은 상실감을 애도하고 가해자가 자신의 신체에 가한 성폭력의 상처를 애도해야만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절망과 자살 위험이 동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정해진 기간

도 없는 이러한 애도의 과정이 두렵고 부담하지만 이 과정을 건너뛰거나 서둘러 끝낼 수도 없다. 새롭게 조정된 건강한 자기서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과정은 피해자가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외상의 재경험 과정을 고백하고 애도하는 작업은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역사적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세 번째 단계는 피해자와 공동체 사이의 연결 복구나 할 것이다. 이 과정은 피해자들이 연대를 통해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이는 피해자가 금기시되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증언하면서 역사에 동참하고 자신의 건강함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자신뿐만 아니라 집단 학살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동맹을 통해 외상을 극복하는 투쟁의 단계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리하여 공동체와의 연대감을 통해 자기서사를 회복한 피해자는 사회로부터의 단절을 극복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외상 증세	치료 과정
환청 결벽증	안정감의 회복을 위한 주위의 관심과 자아 존중감의 회복
외상성 신경증 (악몽, 플래시백)	외상의 재구성을 통한 상실감의 애도 과정이 필요
이웃 간의 단절 부정, 억압, 해리	피해자와 공동체 사이의 연대감을 통한 외상 극복 후 사회정의를 실현할 단초를 마련함

결론적으로 역사적 트라우마에 따른 외상 치료는 종착지가 없다. 건강한 자기서사를 회복하려는 개인의 노력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국가와 집단 지성의 집진적 노력만이 국가 폭력으로부터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외상을 완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을 뿐이다.

참 고 문 헌

[1] 양정심, *제주4·3항쟁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 2005.
 [2] 김점곤,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 박영사, 1973. 양

정심, *제주4·3항쟁: 저항과 아픔의 역사*, 선인, 2008.
 [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6/27/0200000000AKR20130627187100056.HTML?from>
 [4] 김학동, “김석범의 한글 「화산도」 론- 한글 「화산도」의 집필배경과 「까마귀의 죽음」 및 「火山島」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제62권, 2007.
 [5] 한순미, “역사적 물음을 구조화하는 이미지의 위상학- 이청준의 「신화를 삼킨 섬」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9권, 2009.
 [6] 황상익, “*의학사(醫學史)적 측면에서 본 '4·3'*”,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7] 김유경, “제주4·3생존자의 트라우마와 미술치료적 접근”, *미술치료연구*, 제19권, 제3호, 2012.
 [8] 주디스 허먼, 최현정 역, *트라우마*, 열린책들, 2012.
 [9] 왕철, “소설과 역사적 상상력-임철우와 현기영의 소설에 나타난 5·18과 4·3의 의미”, *민주주의와 인권*, 제2권, 제2호, p.202, 2002.
 [10] 카를 슈미트, 김효전, 정태호 역, *정치적인 것의 개념*, 살림, 2012. 강신주, 철학 VS 철학, 그린비, 2010. 카를 슈미트, 김효전, 정태호 역, *정치적인 것의 개념*, 살림, 2012.
 [11] 카를 슈미트, 김향 역, *정치신학: 주권론에 관한 네 개의 장*, 그린비, 2010.
 [12]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13]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 박찬부 역, *쾌락원칙을 넘어서,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1997.
 [14] 전찬희, 지용수,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구제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0호, pp.161-162, 2012.
 [1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선인, 2003.
 [16] 이주미, “현기영 소설에 나타난(火印)의 기억과 역사의식”, *현대소설연구*, pp.249-250, 2005

[17] 진은영, 기억과 망각의 아고니즘-기억의 정치학을 위한 철학적 예비고찰, 시대와 철학, 제21권, 제1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pp.181-182, 2010.

[18]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mid=69697>

저 자 소 개

음 영 철(Yeong-Cheol Eum)

정회원



- 1998년 2월 :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문학석사)
- 2011년 2월 :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보건, 교육, 문화 콘텐츠